

6/26/16

설교 제목: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시편 46:1-11

- (시 46: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 (시 46:2)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 (시 46:3)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절관주** 시 93:3
- (시 46:4)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 (시 46:5)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 (시 46:6) 못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절관주** 시 2:1, 암 9:5, 미 1:4
- (시 46:7)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¹⁾ 피난처시로다 (셀라)
- (시 46:8)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불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절관주** 사 61:4
- (시 46:9)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 (시 46:10)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 (시 46:11)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산성이시로다 **절관주** 신 23:14, 사 12:6
- (시 46:10)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실제로 제 평생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신실히 이행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본문은 고라 자손들이 쓴 시로 BC 722 년 앗수르 왕 산헤립이 북 이스라엘을 정복한 직후 남 유다를 노리고 침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 앗수르, 바벨론 등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항상 그들을 의식하며 살아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앗수르가 강대국이 되어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고 있던 중 이번에는 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직후라서 유다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앗수르가 요구하는대로 조공으로 금과 은을 모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앗수르 왕 산헤립은 유다를 통째로 집어 삼키려는 계략을 가지고 하나님을 능욕하면서 너희가 항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진멸하겠노라고 협박하며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왕하 19:10)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앗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왕하 19:11) 앗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왕하 19:12)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받은 편지를 펴 놓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 놓고 기도한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서류나
문서등을 펴놓고 하나님 보시고 해결해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왕하 19:15)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왕하 19:16)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왕하 19:17) 여호와여 앓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왕하 19:18)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왕하 19:19)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사 37:33)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앓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홍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사 37:34)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 37:35)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 하룻 밤에 앓수르의 군사 십팔만 오천명을 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능욕했던 앓수르 왕 산헤립은 놀라서 자기 본국으로 도망가 수도인 니느웨에
거주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이 사건을 생각하며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양시를 썼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에는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넘쳐납니다.

생각해 보면 앓수르를 물리치는데 유다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절체 절명의 순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 년 종살이를 한 후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 애굽 왕
바로에 추격을 받아 홍해 앞에서 사면초가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싸울터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 14: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 14: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 담대히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손 놓고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멍하니 있으라는 말입니까?

1. '침묵하고 기다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절체 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또는 자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 삶에 위기가 닥칠지라도 우리는 불평, 불만, 분노를 쏟아내고
좌절하는 대신에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경위를 아시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피가 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조하고 조급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어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집행할 수 있는 번제를 자신이 집행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자초했습니다.(삼상 13:11-12)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하에 당신이 하나님 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2.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힘 등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수단을 동원합니다. 첫 번째가 돈입니다.

뭐니 뭐니해도 머니가 최고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에는 돈만 있으면 대부분의 위기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혈안되어 돈 돈 돈 하며 돈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두 번째는 인맥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평소에 미리 인맥을 쌓아 놓으려 학연 지연 등을 만드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사랑없는 정략 결혼까지 동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능력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를 머리 속에 뇌이며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기릅니다.

스스로 능력을 갖춰야 경쟁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런 수단들을 동원하여 스스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 세상 문제 중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 146: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 146:4)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 146: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이 해결책 되십니다.

3.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농부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농부에게는 태양을 움직일 능력도, 태풍을 막을 능력도, 아니 단 한 방울의 비를 내리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라도 농부는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 등 농사 일을 합니다.

그런 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잠잠히 수확의 때를 기다립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나태하게 게으르게 무책임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런 후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4.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술이나 담배 마약 자살 등의 방법 등으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빉니다.

그러나 이런 식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는 먼저 위기가 닥친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위기 이면에는 언제나 우리를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길러 주기 위한 방편으로 기근 질병 전쟁 등을 겪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죽여 버리려고 그들을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 넣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더 굳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문제와 위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5.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든지, 큰 권력을 소유해서 교회에 이권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든지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내 욕심과 내 야망을 포장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당신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 주신 것을 가지고 충실한 청지기로 살면 됩니다.

많이 맡겨 주셨으면 많이 맡겨 주신대로, 적게 맡겨 주셨으면 적게 맡겨 주신대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원래의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시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6/23 밤 확정된 영국 국민들의 유럽 연합 탈퇴 결정으로 인해 유럽을 비롯한 세계는 패닉
상태로 빠져 들었습니다.

처음 겪어 보는 일이라 세계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로 접어
들었습니다.

밤사이 주식 시장은 곤두박질 치고 금과 은 값은 치솟았으며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세상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 가면서 이와 같은 또는 이와 다른 수많은 종류의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각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너무 당황하거나 불안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욱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혼자서 싸우셔서 온 천하에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